

http://dx.doi.org/10.17703/JCCT.2019.5.2.329

JCCT 2019-5-41

간호학생의 성과기반교육 달성도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s of Accomplishment of Outcome-based Education in Nursing Students

유제복*, 원종순**, 정승은***

Je Bog Yoo*, Jongsoon Won**, Seung Eun Chung***

요약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성과기반교육 달성도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364명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연구능력, 성과기반교육 달성도로 구성된 자가보고 질문지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간호학생의 성과기반교육 달성도는 학년, 성과기반교육 이해도 및 만족도, 임상실습 경험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과기반교육 달성도는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연구능력과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간호학생의 성과기반교육 달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과기반교육 만족도($\beta=0.33$, $p<0.001$), 셀프리더십($\beta=0.21$, $p<0.001$), 연구능력($\beta=0.18$, $p<0.001$), 비판적 사고성향($\beta=0.17$, $p=0.003$), 의사소통능력($\beta=0.14$, $p=0.006$), 임상실습 경험($\beta=0.10$, $p=0.02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과기반교육 달성도에 대한 이들 변수의 총 설명력은 38.1%였다. 성과기반교육의 달성도를 높이기 위해 셀프리더십, 연구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및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과 및 비교과 활동 전략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성과기반교육,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연구능력

Abstract The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accomplishment of outcome-based education of nursing students. Study subjects were recruited 364 nursing students of junior and senior. We collected data using self-reported questionnaire of communication compet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leadership, research competence and accomplishment of outcome-based education. accomplishment of outcome-based education showed statistical differences according to grade, understanding of outcome-based education, satisfaction of outcome-based education, and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um. Accomplishment of outcome-based educa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communication compet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leadership and research competence. The influences of accomplishment of outcome-based education were satisfaction of outcome-based education ($\beta=0.33$, $p<0.001$), self-leadership ($\beta=0.21$, $p<0.001$), research competence ($\beta=0.18$, $p<0.00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beta=0.17$, $p<0.003$), communication competence ($\beta=0.14$, $p=0.006$), and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um ($\beta=0.10$, $p=0.023$). These variables explained 38.1% of total variance on the accomplishment of outcome-based education. It would need to develop and apply formal and non-formal educational courses for enhancing self-leadership, research compet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Key words : Outcome-based education, communication compet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leadership, research competence

*정희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제1저자)

**정희원, 을지대학교 간호대학 (참여저자)

***정희원, 한국교통대학교 간호학과 (교신저자)

접수일: 2019년 2월 2일, 수정완료일: 2019년 3월 7일

게재확정일: 2019년 4월 5일

Received: February 02, 2019 / Revised: March 07, 2019

Accepted: April 05, 2019

*Corresponding Author: sechung@ut.ac.kr

Dept. of Nursing,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Korea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성과기반교육이란 졸업을 위해 최종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성과 혹은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수-학습 운영과 평가 등의 교육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1]. 현재 한국간호교육평가원(평가원)은 대학의 고유 특성과 조화로운 성과기반 교육을 통해 간호학과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인증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전국 간호학과 교육과정을 통해 성취해야 할 7개의 핵심역량(교양지식과 간호술의 통합적응능력, 전문분야간 의사소통과 협력능력, 리더십, 비판적 사고능력, 법적·윤리적 책임인식능력, 연구 수행능력 및 정책변화 대응능력)과 12개의 학습성과 틀을 제시하였다[2].

의사소통능력은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 핵심역량 중 하나로서[2], 간호사는 환자 및 가족과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해 중요한 간호문제를 파악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갈등을 중재할 수 있다[3]. 다양한 건강관리팀 간의 협력이 필수적인 복잡한 보건의료환경 속에서 의료서비스 제공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생각, 적용, 분석, 종합, 평가의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전문적으로 질적인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4].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임상수행능력의 중요한 예측요인으로서[5][6], 간호교육에서 임상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해 비판적 사고성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간호교육 4년제 일원화가 실현됨에 따라 간호교육도 역량 있는 간호 리더를 키우고자 하는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셀프리더십은 개인적인 특성으로서 자신의 내적 동기부여에 중점을 두고 스스로 자신의 사고와 감정,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며[7], 학습이나 교육을 통하여 고무되어 발전될 수 있다[8]. 셀프리더십이 높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수행 결과를 나타낸 선행연구[9]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성과기반의 간호교육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성과이다.

평가원이 제시한 12개 학습성과 중 학부과정의 간호 연구와 관련된 성과는 ‘학습자는 간호연구를 기획하고

직접 수행할 수 있다’로 단지 연구를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구문제를 발견하고,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을 때 성취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연구수행은 다수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부과정에서 도달해야 할 성과로 제시하였으나[10], 실제로 대학에 따라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경우도 있어 연구능력에 대한 성과의 수준은 대학마다 차이가 있다.

간호학 학습성과와 관련하여 학습성과 평가체계 및 도구[11],[12], 학습성과 개발[13], 핵심역량[14] 및 학습성과 달성[15]을 위한 연구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간호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리더십 등을 다루고 있으나, 연구능력의 역량을 함께 다룬 연구는 부족[16]하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및 연구능력이 성과기반교육 달성도에 미친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교육프로그램을 평가하고 발전을 꾀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성과기반교육 달성도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연구능력 및 성과기반교육 달성의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연구능력 및 성과기반교육 달성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연구능력 및 성과기반교육 달성 정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성과기반교육 달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및 연구능력이 성과기반교육 달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3개 대학의 간호학과 3, 4학년에 재학 중이며, 2개 학기 이상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최소 표본 수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위해 예측인자 5개,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 효과크기 0.15로 산출한 결과 138명이었다.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대상자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설문에 응답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평균 10분 정도였다. 수집된 자료 중 불충분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19명의 자료를 제외 한 364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성과기반교육 달성도

성과기반교육 달성도는 평가원[2]이 제시한 12개의 프로그램 학습성으로 구성된 총 12문항의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과기반교육 달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0.87$ 이었다.

2)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상호작용을 잘하는가를 측정하는 도구[17][18]에서 신뢰도가 낮은 2문항을 제외하고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언어적 의사소통 18문항과 비언어적 의사소통 5문항의 2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총 23문항의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18]는 Chronbach's $\alpha=0.89$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hronbach's $\alpha=0.90$ 이었다.

3) 비판적 사고성향

비판적 사고성향은 개인적 또는 전문적 업무에 있어 목적을 갖고 스스로 판단하여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사고하는 개인적인 성향을 측정하는 도구[19]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지적 열정/호기심 5문항, 신중성 4문항, 자신감 4문항, 체계성 3문항, 지적 공정성 4문항, 건전한 회의성 4문항, 객관성 3문항의 7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총 27문항의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19]는 Chronbach's $\alpha=0.84$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hronbach's $\alpha=0.85$ 이었다.

4)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 개인의 내적 동기부여에 중점을 두고 자신의 사고와 감정,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자율적인 힘을 측정하는 도구[7][20]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기기대, 리허설, 목표설정, 자기보상, 자기비판, 건설적 사고의 6개 하위영역으로 각 3문항씩 총 18문항의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강함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20]는 Cronbach's $\alpha=.087$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0.85$ 이었다.

5) 연구능력

연구능력은 연구주제 선정, 연구의 필요성 기술, 연구윤리 이해, 문헌고찰 및 발표 가능성을 측정하는 도구를 연구자들이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총 5개 문항의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연구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0.85$ 이었다.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K대학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KNUT IRB-39)을 받은 후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연구목적, 연구절차 및 방법, 철회 가능성, 예상되는 위험과 이득, 연구 참여에 따른 손실과 보상, 익명성과 비밀보장, 연구물 발표 및 출판 등에 관한 동의서를 읽고 연구자의 설명을 들은 후 자발적으로 서면동의를 한 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과기반교육 달성도,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및 연구능력의 정도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과기반교육 달성도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로, 사후검정은 Scheffe's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연구능력 및 성과기반교육 달성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성과기반교육 달성도에 영향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연구능력, 성과기반교육 달성도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은 3.75±0.45이었고, 하위영역별로는 언어적 의사소통 3.78±0.46, 비언어적 의사소통 3.63±0.51이었다.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3.58±0.33이었고, 하위영역 중 객관성이 3.95±0.50으로 가장 높았고, 체계성이 3.33±0.56으로 가장 낮았다.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은 3.70±0.41이었고, 하위영역 중 자기보상이 4.05±0.60으로 가장 높았고, 건설적 사고가 3.35±0.63으로 가장 낮았다. 대상자의 연구능력은 3.37±0.64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성과기반교육 달성도는 3.48±0.47이었다 (Table 1).

표 1.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연구능력, 성과기반교육 달성도

Table 1. Degree of communication compet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leadership, research competence and accomplishment of outcome-based education (N=364)

Variables	Categories (Number of Item)	M±SD (per item)
CC	Verbal communication (18)	3.78±0.46
	Nonverbal communication (5)	3.63±0.51
	Total (23)	3.75±0.45
CTD	Intellectual enthusiasm / curiosity (5)	3.55±0.52
	Worthiness (4)	3.34±0.55
	Confidence (4)	3.53±0.51
	Systematicity (3)	3.33±0.56
	Intellectual fairness (4)	3.82±0.47
	Sound skepticism (4)	3.57±0.51
	Objectivity (3)	3.95±0.50
	Total (27)	3.58±0.33
SL	Self-expectation (3)	3.69±0.56
	Rehearsal (3)	3.86±0.59
	Goal setting (3)	3.64±0.65
	Self-compensation (3)	4.05±0.60
	Self-criticism (3)	3.59±0.69
	Constructive thinking (3)	3.35±0.63
	Total (18)	3.70±0.41
RC	-	3.37±0.64
AOBE	-	3.48±0.47

CO=Communication competence; CTD=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L=Self-leadership; RC=Research competence; AOB=Accomplishment of outcome-based education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과기반교육 달성도

대상자의 학년($t=-2.74, p=0.007$), 성과기반교육 이해도($F=10.13, p<0.001$), 성과기반교육 만족도($F=19.29, p<0.001$), 임상실습 경험여부($t=2.74, p=0.007$)에 따라 성과기반교육 달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증 결과 성과기반교육을 이해하는 집단이 보통 이해하는 집단과 이해하지 못하는 집단보다 성과기반교육 달성도가 높았고, 성과기반교육을 만족하는 집단이 보통 만족하는 집단과 만족하지 않는 집단보다 성과기반교육 달성도가 높았다(Table 2).

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과기반교육 달성도

Table 2. Accomplishment of outcome-based educ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364)

Variables	Categories	N (%)	AOBE	
			M±SD	t or F(p) Scheffe
Gender	Male	61 (16.76)	3.42±0.46	-1.08 (0.279)
	Female	303 (83.24)	3.50±0.47	
Grade	Junior	191 (52.47)	3.42±0.44	-2.74 (0.007)
	Senior	173 (47.53)	3.55±0.49	
Under- standing of OBE	Understand ^a	130 (35.71)	3.63±0.48	10.13 (<.001) a>b,c
	Moderate ^b	150 (41.21)	3.41±0.45	
	Not understand ^c	84 (23.08)	3.39±0.42	
Satisfac- tion of OBE	Satisfied ^a	116 (31.96)	3.69±0.48	19.29 (<.001) a>b,c
	Moderate ^b	222 (61.16)	3.39±0.42	
	Unsatisfied ^c	25 (6.89)	3.34±0.49	
Course of leadership	Yes	39 (10.71)	3.46±0.46	-0.38 (0.705)
	No	325 (89.29)	3.49±0.47	
Course of research	Yes	163 (44.78)	3.43±0.47	-1.88 (0.061)
	No	201 (55.22)	3.53±0.47	
Course of clinical practicum	Yes	174 (47.80)	3.55±0.49	2.74 (0.007)
	No	190 (52.20)	3.42±0.44	

OEB=outcome-based education; AOB=Accomplishment of outcome-based education

3.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연구능력, 성과기반교육 달성도 간의 관계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연구능력, 성과기반교육 달성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과기반교육 달성도는 의사소통능력($r=0.40$, $p<0.001$), 비판적 사고성향($r=0.47$, $p<0.001$), 셀프리더십($r=0.46$, $p<0.001$), 연구능력($r=0.38$, $p<0.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표 3.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연구능력, 성과기반교육 달성도 간의 관계

Table 3. Correlation among communication compet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leadership, research competence and accomplishment of outcome-based education (N=364)

Variables	AOBE r(p)
Communication competence	0.399(<0.00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0.470(<0.001)
Self-leadership	0.462(<0.001)
Research competence	0.384(<0.001)

AOBE=Accomplishment of outcome-based education

4. 대상자의 성과기반교육 달성도에 영향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성과기반교육 달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학년, 성과기반교육 이해도, 성과기반교육 만족도, 임상실습 경험여부,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연구능력을 회귀식에 투입한 후 단계별 회귀방식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과기반교육 만족도, 임상실습 경험여부,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연구능력이 선택되었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0.254~0.972로 1.0 이하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지수(variation index factor, VIF)는 1.030~3.943으로 10을 넘지 않았으므로 모든 변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을 확인한 결과, Durbin-Watson의 값이 1.932로 나타나 오차의 독립성이 만족되었다. 성과기반교육 달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과기반교육 만족도($\beta=0.33$, $p<0.001$), 셀프리더십($\beta=0.10$, $p=0.023$), 연구능력($\beta=0.18$, $p<0.001$), 비판적 사고성향($\beta=0.17$, $p=0.003$), 의사소통능력($\beta=0.14$, $p=0.006$), 임상실습 경험($\beta=0.10$, $p<0.023$)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성과기반교육 달성도에 대한 이들 변수의 전체 설명력은 38.1%였다(Table 4).

표 4. 성과기반교육 달성도에 미치는 영향

Table 4. Influences of accomplishment of outcome-based education (N=364)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0.50	0.25	-	2.02	0.045
Satisfaction of OBE (Satisfied)	0.33	0.08	0.33	4.04	<0.001
Course of CP (Yes)	0.09	0.04	0.10	2.28	0.023
CC	0.14	0.05	0.14	2.78	0.006
CTD	0.24	0.08	0.17	2.95	0.003
SL	0.24	0.06	0.21	3.69	<0.001
RC	0.13	0.03	0.18	3.93	<0.001
<i>R</i>			0.617		
<i>R</i> ² (Adj. <i>R</i> ²)			0.381 (0.368)		
F(p)			30.97 (<0.001)		

OBE=Outcome-based education; CP=Clinical practicum; CC=Communication competence; CTD=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L=Self-leadership; RC=Research competence

IV. 논 의

간호대학은 평가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7개의 핵심역량을 기본으로 대학 특성에 맞게 핵심역량과 교육목표 및 달성수준을 설정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및 연구능력을 중심으로 성과기반교육 달성도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으며, 성과기반교육 달성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구결과에 따라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75점으로 나타났다. 연구도구가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려우나 3, 4학년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능력이 3.66점, 3.30점으로 나타난 연구[21][22]보다 본 연구의 결과가 다소 높게 나타났고,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23]에서는 3.79점으로 나타나 학년의 특성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뿐 아니라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저학년에서 의사소통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기 때문에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능력을 키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언어적 의사소통능력보다 낮은 점

수를 보였던 비언어적 의사소통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요구된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5점 만점에 평균 3.58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 중 체계성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보다 다소 낮게 나타난 연구[24]에서는 비판적 사고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대학의 간호학생이 연구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간호사가 임상 현장에서 체계적이고 신중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교육과정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셀프리더십은 5점 만점에 평균 3.70점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와 유사하게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25]의 결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중에는 리더십과 관련된 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학생회, 동아리 등 교과외 활동을 통해 리더십을 경험하기도 했고, 임상실습을 통해 리더십 경험을 보고서로 작성해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37점으로 다른 변수에 비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연구의 대상자 중 163명(44.78%)은 간호연구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여 연구계획서를 최종 보고서로 작성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된다.

성과기반교육 달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48점이었다. 간호학생의 일반적 특성 중 4학년, 성과기반교육을 이해하는 집단, 성과기반교육을 만족하는 집단, 임상실습 교과목을 이수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성과기반교육 달성도가 높았다. 본 연구의 대상자 중 3학년인 191명(52.47%)은 임상실습 전에 자료수집이 이루어졌으며, 나머지 대상자들은 적어도 2개 학기 이상의 임상실습을 경험한 바 있었다. 임상실습은 간호학생이 졸업 후 전문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하는데 핵심요소로서,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때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므로[26], 만족스러운 임상실습의 경험은 성과기반교육의 달성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성과기반교육 달성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과기반교육 만족도(만족하는 집단)였으며, 셀프리더십, 연구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의사소통능력, 그리고 임상실습 경험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과기반교육 달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중에서 셀프리더십은 교과외 활

동을 통해 직, 간접적으로 리더 역할을 수행하면서 성과기반교육 달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대학에서는 4학년 2학기에 직접 연구를 수행하고 학술제를 통해 발표 경험을 갖도록 간호교육 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연구능력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과기반교육 달성도에 영향 미치는 요인으로 비판적 사고성향, 의사소통능력은 임상실습 교과목 이수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간호역량이다. 비판적 사고성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임상실습을 나가기에 앞서 임상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환자의 간호사례를 반영한 교육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뮬레이터뿐 아니라 표준화환자를 이용한 시뮬레이션교육이나 역할극과 같은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이용한 교육이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3개 대학의 3, 4학년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모든 간호대학 또는 간호학과에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성과기반교육 달성도는 대학의 특성에 따라 달리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간호학생의 핵심역량 중 성과기반교육 달성도에 영향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V. 결 론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성과기반교육 달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간호학생의 성과기반교육 만족도, 셀프리더십, 연구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의사소통능력, 임상실습 경험의 순으로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성과기반교육 달성도에 대한 이들 변수들의 전체 설명력은 38.1%였다. 성과기반교육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강할수록, 연구능력이 우수할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강할수록, 의사소통능력이 우수할수록, 임상실습의 경험이 많을수록 성과기반교육 달성도가 유의하게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성과기반교육 달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근거로 간호학생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성과기반교육 달성도에 영향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교양지식과 간호술의 통합적응능력, 법적이고 윤리적 책임인식능력, 정책변화 대응능력에 관한 추후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 [1] Jho, M. Y. (2010). An analysis of research on nursing practice education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16(2), 239–248.
<http://dx.doi.org/10.5977/jkasne.2010.16.2.239>
- [2] Korea Associ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2). <http://www.kabone.or.kr/HyAdmin/upload/goodFile/120121127132143.pdf>(accessed Oct. 2015).
- [3] Lee, K. J. (2013). *Communication and nursing*. Seoul: Shinkwang.
- [4] Shin, K. R., Ha, J. Y., & Kim, K. H. (2005). A longitudinal study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 critical thinking skills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5(2), 382–389. DOI: <http://www.ncbi.nlm.nih.gov/pubmed/15860952>
- [5] Lee, O. S., Gu, M. O., & Kim, M. J. (2015). Influence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1), 380–388.
<http://dx.doi.org/10.5762/KAIS.2015.16.1.380>
- [6] Yang, J. J. (2019). The study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linical competence,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5(1), 443–449.
<http://dx.doi.org/10.17703.JCCT.2019.5.1.443>
- [7] Manz, C. C. (1998). *Mastering self-leadership: Empowering yourself for personal excellence*.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 [8] Manz, C. C., & Sims, H. P. (1991). Superleadership: Beyond the myth of heroic leadership. *Organizational Dynamics*, 19(4), 18–35.[http://doi.org/10.1016/0090-2616\(91\)90051-A](http://doi.org/10.1016/0090-2616(91)90051-A)
- [9] Kang, Y. S., Choi, Y. J., Park, D. L., & Kim, I. J. (2010). A study on nurses' self-leadership, self-esteem,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6(2), 143–151.
<https://doi.org/10.11111/jkana.2010.16.2.143>
- [10] Shin, S. M. (2016). A study of planning and evaluation for 'Nursing Research' curriculum applied outcome-based education. *The SNU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25(1), 96–117.
- [11] Jang, G. S., Kim, B. N., Jung, S. H., Kim, Y. M., & Kim, J. S. (2016). A study on evaluation system for nursing bachelor degree program outcomes: Focus on improvement in nursing leadership abilit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2(5), 540–552.
<https://doi.org/10.11111/jkana.2016.22.5.540>
- [12] Kim, H-K. (2015). Development of program outcome self-assessment tool in Korean nursing baccalaureate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1(2), 215–226.
<http://dx.doi.org/10.5977/jkasne.2015.21.2.215>
- [13] Hwang, Y. Y., Kim, S. H., & Chu, M. S. (2015). Developing course outcome to achieve exit outcome: Applying Hauenstein's theory.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1(2), 155–167.
<http://dx.doi.org/10.5977/jkasne.2015.21.2.155>
- [14] Park, J-M., Kim, C-S., Kim, J-H., An, J-Y., & Pyo, E-Y. (2015). Strategy for improving core nursing competency-based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1(3), 426–439.
<http://dx.doi.org/10.5977/jkasne.2015.21.3.426>
- [15] Park, J. W., Yoo, M-S., Seo, E. J., & Park, H-R. (2015). The longitudinal analysis of nursing student's core competency: Focusing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cooperative skill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7(4B), 2269–2282.
- [16] Shin, S. J., & Jung, M. S. (2017). Analysis on research trends on nursing education program outcome.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8(2), 10543–1073.
<http://dx.doi.org/10.22143/HSS21.8.2.55>
- [17] Navran, L. (1967). Communication and adjustment in marriage. *The Family Process*, 6, 173–184.
<http://doi.org/10.1111/j.1545-5300.1967.00173.x>
- [18] Mo, E. H. (2002). *The development marital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enhancing couples' self-esteem and communication skills*. Hanyang University, Seoul.
- [19] Yoon J. (2004).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the measuremen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 nursing*. Doctoral dissert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 [20] Kim, H. S. (2002). *Middle school teacher job satisfac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 [21] Kim, M. O. (2016). Study on self-efficacy, communication competenc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6), 609-617.
<https://doi.org/10.5762/KAIS.2016.17.6.609>
- [22] Park, J. H., & Chungm S. K. (2015). The relationship among self-esteem, empathy, communication skill and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11), 7698-7707.
<https://doi.org/10.5762/KAIS.2015.16.11.7698>
- [23] Kang, H-S., Kim, Y-Y., & Lee, H-S. (2018). Predictive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3), 389-398.
<https://doi.org/10.5762/KAIS.2018.19.3.389>
- [24] Lee, J., & Jang, M. H. (2017). The influences of critical thinking ability, communication skills, leadership, and professionalism on clinical practice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3(2), 124-133.
DOI: <https://doi.org/10.14370/jewnr.2017.23.2.124>
- [25] Park, H-S., & Han, J-Y. (2015). Self-leadershi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6(3), 695-706.
<http://dx.doi.org/10.7465/jkdi.2015.26.3.695>
- [26] Yang, N. Y., & Moon, S. Y. (2013). The impact of health status,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social problem ability on colleg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 33-42.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33>

※ 2017년 한국교통대학교 지원을 받아 수행
하였음. (This was supported by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in
2017.)